닭의 種名과 商標紛爭

──活用이 最上의 防禦手段──

世界的으로 有名한 美國이나 캐나다産 닭의 名稱이 日本서 商標法上權利侵害가 된 웃지 못할 商標紛爭이 發生한 일이 있다.

30歲가량의 日本靑年이 1964年 어느날 日本養鷄場을 相對로 「デムラー」(더물러), 「シェーバー」(세이버)는 自己가 登錄한 상표이므로 앞으로 닭의 상표로서 無斷使用하지 말 것이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破棄하라고 警告書를 發表한 事實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경고서의 眞意는 日本商標制度가 先願登錄主義를 採擇하고 있을뿐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特許廳에 出願登錄이 可能하며 또한 美·加養鷄業者들이나 日本國內 取扱業者들이 일본에 그 상표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奇貨로 한 몫을 보자는데 있었다.

경고서를 받은 양계업자는 美·加側에서는 이 問題가 單純한 상표문제가 아니라 國際間의 信義問題라 하여 說往說來하였고 이어서 駐日美大使館은 美國農務省에 報告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를 받은 美農務省은 即時 全美種鷄孵卵業者들에게 일본에서 상표의 盜難事件이 발생하여 去來妨害의 憂慮가 있으니 일본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하루 빨리 등록하라고 호들갑에 가까운 경고 발표가 있었다.

이때 그 청년은 더물러의 상표는 1,200萬円, 세이버의 상표는 1,500萬円에 사라고 내걸고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關係者들이 당황한 것은 말할나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말썽이 빚게된 動機가 웃어 넘길 수 없는 背景이 깔려 있으며 發展途上國에서는 좋은 參證거리가 된다.

즉 그 청년의 아버지는 生前에 많은 特許權을 取得하였으며 특히 상표등록의 妙味를 아들에게 傳授하였다. 그 청년은 이를 바탕으로 1958년에는 正田美智子가 有力한 日皇의 子婦候補라는 것을 알게되자 재빨리 「ミッチー」(미찌)의 상표를 등록 출원한 다음 미찌 붐을 利用, 상표로서 賣買하여 재미를 톡톡이 본 實績의 所有者인 것이다. 지금세상에 통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無視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닭의 상표 문제는 그 후 美·加兩大使舘에서 抗議까지 벌였지만 그때의 商標法上으로는 合法登錄이였으므로 解決은 審判과 裁判에 依存하는 結果로까지 번졌으며 그 뒷일은 釋然치가 않다. 알려진 바로는 美日間의 貿易을 配慮한 行政指導로 終結되는가하면 캐나다대사관은 그일이 있은 다음부터 日本商標公報를 한號도 빼지않고 熱心이 入手檢討하고 있다는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事例를 他山之石으로 여겨야 하겠느냐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문제점이 있다. 가까운 예가 프랑스에 피에르가르댕이 있고 西獨의 아디다스문제를 들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 列記한 피에르가르댕이나 아디다스의 3線標가 同一한 性格의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제도를 惡用하건 또는 活用할 줄을 모르건간에 그래도 상표제도란 그자체를 認識하려는 그 自體만은 먼저 理解해야 한다. 알고도 이용하지 않거나 무시했다가 事態가 발생한 다음에 어떠한 方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해결하려는 그 精神은 唾棄해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서 事件化後의 損失을 먼저 豫測하는 슬기가 지금 우리는 아쉬운 때이다.

제도가 創設되어 있음은成果의 多寡를 不計하고 그 意義가 있을 것이다. 오로지 먼저 걸어온 先進國의 後響은 冷徹히 評價判斷할 줄 아는 雅量이 必要한 것이다.